

5천509명 자원봉사 참여...유가족 아픔 나눴다

목포 청각장애인 부부 매일 300인분 茶 무료나눔 '몽클' 美시애틀 40대 부부 묵묵히 봉사 후 인적사항 공개 사양 김영록 지사 "단순한 선행 넘어 사회의 중요 가치" 강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나눔 활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사고 현장 수습 지원, 유가족 지원, 교통 안내, '사랑의 밥차' 운영을 통한 식사와 물품 지원, 재난 심리 등 자원봉사 활동에 5천50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에 거주하는 한 청각장애인 부부는 사고 당일부터 매일같이 커피·유자차·생강차 300인분을 준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무료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메뉴판 옆에 '저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짓으로 말씀해주세요'라고 주문 요령을 적어 놓아 주변을 문물하게 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 30년 동안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해온 임경희(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저자) 작가는 작가협회 '그·데·함(그림책+데스+함께돌보는 운동)' 회원들과 함께 손수건 600장에 편지를 적어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아픈 사연을 나눴다.

임 작가는 "뉴스를 통해 제주공항 참사를 접하고 공동체 일원이 TV를 보며 슬퍼하다 참사에 대한 기억이 잊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봉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미국 시애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대 조모씨는 과거 미군 경력과 경비행기 교관 경험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에 고국으로 날아와 지난 1일 아내와 함께 무안공항에서 후원물품 이송과 물품 배부, 환경정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그는 자원봉사센터 측에서 연락처를 물었지만 조용히 봉사하고 가고 싶이라며 이를 정중히 사양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선 감귤 156박스를 후원하고 광명·한 베이커리에선 냉동빵 79박스를 선뜻 보내왔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청이 한의약품 1만2천명분을, 서울 광진구의 한 시민은 쌀빵과 블루베리잼 200개를 후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봉사활동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사회의 중요한 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9일째인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구호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장례 절차로 공항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온 유가족들을 위해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임을 새삼 느꼈다"며 "유가족들의 상처가 깊고 큰 만큼 도 차원에서도 향후 트라우마 상담 연계 등 세심하게 지원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29일 사고 발생 즉시, 물품 후원이나 자원봉사 참여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 도청 누리집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자원봉사 및 후원물품 문의처 안내' 팝업창을 게시, 자원봉사를 안내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유가족·친인척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市, 청소·세탁·아동 돌봄 등 가사·식사 무료 제공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례 절차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 희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을 유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여객기 참사에 따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평가나 조사 없이 즉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식사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가정을 방문, 청소·세탁·식사 준비, 근거리 이동 동행, 아동 돌봄 등 가사·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는다. 기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이 있지만 긴급 상황인 점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이번 참사와 관련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은 5일 기준 총 13가구(30여명)에서 제공받고 있다. 희생자가정에 어린이·노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가사·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은 유가족 전담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용 전화번호 '돌봄콜'(1660-2642)로 연락하면 된다.

돌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과장급으로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들에게 편의 제공 및 장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례 이후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변에서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조계원 "지원하되 간섭 않는 문화기본법 통과"

최근 경북 구미시가 '윤석열 탄핵'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은 6일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일명 이승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돼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 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됐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를 내린 '윤석열 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화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지사 "대설 철저한 대비"...취약지 점검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오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대설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예상보다 적설량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철저히 대비해 또 다시 재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는 붕괴, 전도 등 대설 피해가 우려되는 1천488개소를 긴급 점검해 99건을 신속히 조치했다.

특히 무안공항 인근 도로 제설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설차량을 전담 배치하고 소형살포기와

한파 대비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전대피를 돕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농작물과 농축산시설물 관리, 고령농 등 취약농업인 야외활동 자제 등 농업인 대처 요령을 읍면 주민센터, 농업인단체, SMS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김재정 기자

89

선진안마기술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CHANGE

CHANGE

Happy Holidays.

2024.12.01 ~ 2025.01.31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최대 100만원 할인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Happy Holidays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타사 안마의자 포함, 쓰시던 안마의자 교체 시, MAN1 최대 100만원,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 할인가로 구매가능!

*판매점에 따라 혜택은 다소 상이합니다

무선청소기

파나소닉 무선청소기 MC-A10 (249,000원)

*색상 랜덤발송
*재고 소진시까지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